



지체의 말씀

불기 2563년 8월 / 통권 462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학 인 불 요 용 수 행
學人不了用修行하면

진 성 인 적 장 위 자
眞成認賊將爲子로다

공부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애써 수행한다면
참으로 도적을 오인해서 자기 아들로 여기는 것이다.

손 법 재 멸 공 덕
損法財滅功德은

막 불 유 사 심 의 식
莫不由斯心意識이로다.

법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모두 이 마음이 분별하는 의식 때문이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내가 생각하는 백중기도의 의미 / 서경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0

알림마당 · 13

대광사 8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7·8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7·8월 활동

칠월칠석 무병장수 기도 안내

수능합격 백일기도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내가 생각하는 백중기도의 의미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매년 선망 부모나 친척 인연 영가들을 위하여 ‘백중기도’를 한다. 기도를 올리는 신도들 가운데, 멀리는 몇십 년 가깝게는 처음인 가정들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반복하시는 불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야만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이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라 생각한다.

물론 ‘백중 기도’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그렇지만 대개는 절에서 매년 하는 기도이다 보니, 그저 해야만 하는 것이거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하고 신행한 입장에서, 매년 ‘백중기도’를 해야만 할까? 하는 의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정답이라 말할 수 없지만, 간략히 적어보려 한다.

첫째 : 선망 조상이나, 친척, 인연 영가들의 전생에 수억 겁을 지나오면서 지어온 그분들의 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

둘째 : 영가들이 사후에 어떤 업을 받았는지 또한 알지 못한다. 만약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다면, 천상의 과보가 끝나면 그다음 받을 업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이란 단지 그에 대한 과보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 동양 유교 사상 가운데 효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준 조상·부모님께 감사하고, 불법을 만나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연에 고마움을 천도라는 의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 지어온 선근 공덕이나 선하지 못한 업에 따라서 이미 좋은 과보를 받은 이도 있을 것이다. 또는 49재나·천도의식 등을 통하여, 전생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고귀한 삶을 통하여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났거나, 깨달음의 세계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어떻게 살면 선한 종자를 만들 수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 그렇다고 아는 것을 나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것은 영가들 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님들이 재를 지낼 때 행하는 의식문들이 모두 영가들에게 미련이나 집착 모두 버리고 훌가분하게 좋은 인연이나 깨달음의 세계로 가라는 길을 안내해 주는 말들로 구성되어있다. 어떤 영가는 한 번 듣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못한 영가들도 있다는 것을, 현재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백중기도’가 선망 조상들이나 인연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맑혀 선근을 심어 과거의 잘못된 업은 없게 하고, 미래의 선업을 저축한다는데 더욱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다. 타의에 의하거나, 오발탄처럼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다. 불법을 만나는 축복을 받고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생활과 삶을 통하여 붓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실천하면 행복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나를 있게 해준 것이 선망 부모님들이니, 그분들에게 행복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을 백중 49일 기도라는 의식을 빌어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들께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을,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을 한다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부처님의 말씀

6. 초전법륜과 전법

3) 제자들의 귀의

마하갓사빠와 아난다__

마하갓사빠는 부유한 바라문 집안출신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들인 뒤에 아내와 함께 스승을 찾아 출가를 하였다. 평생을 검박하게 수행하며 교단의 모범이 되었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나신 후 진리의 가르침이 세상에 바르게 전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제자이다. 특히 500여명의 아라한들을 왕사성의 칠엽굴에 모이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모두 모으는 결집(結集)을 주도하여, 후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전해지는데 큰 공을 세웠다. 아난다는 25년간이나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모신 제자이다. 온화한 성품의 아난다는 지극하게 부처님을 시봉하는 것에 자신의 출가생활을 다 바쳤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 부처님 열반 직후 열린 결집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관한 부분을 전부 암송해 내는 역할을 맡았다.

비구니교단의 성립__

성도한 지 2년후, 부왕인 슷도다나왕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



투어진 부처님의 고향 방문은 까뻬라국의 석가족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었다. 왕족들과 많은 왕자들이 앞 다투어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했다. 특히 부처님의 양모였던 마하빠자빠띠와 아내인 야소다라를 비롯한 석가족 여인들은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하자 부처님은 여덟가지의 조건을 내세운 뒤에 바이살리에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이로써 마침내 여성 출가자, 즉 비구니 승가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4) 중생교화

급고독장자와 기원정사 건립

마가다국의 죽림정사와 함께 불교의 2대 정사로 꼽히는 꼬살라국의 기원정사(祇園精舍)는 사위성의 부유한 상인인 급고독장자가 지어 부처님께 기증한 절이다. 마가다국의 친구 집에 들렀다가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들은 급고독장자는 크게 감화를 받아 고향인 사위성으로 부처님을 초청하고, 부처님과 승단을 위해 정사를 짓는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건립한 기원정사는 유명한 『금강경』이 설해지는 장소가 되었고, 그 후 불교의 최대 거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급고독장자는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물건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며,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향한 존경심과 무한한 신심을 지녔던 불자이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상인이었던 장자에게 부처님은 대중들을 거느리는 네 가지 방법인 보시하고(布施), 다정한 말을 건네며(愛語), 이로운 일을 하고(利行), 함께 일을하는(同事), 네 가지의 사섭법(四攝法)을 갖춘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는 재가불자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로 경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똥치기 니디

인도 사회는 예로부터 매우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다. 현대의 인도 사회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사성(四姓)제도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네가지 계층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상위 계급의 사람들은 그들과의 접촉을 아예 금하고 있을 정도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다.

똥치기 니디(Nidi, ‘니이다이’라고도 함)를 만나게 되었다. 니디는 부처님이 다가오자 당황하여 몸을 피해 이러저리 도망 다니다 결국 등에 지고 있던 오물을 부처님께 쏟게 된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는 니디를 향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서 일어나라. 가자, 나와 함께 강으로 가서 씻자.”

“안됩니다. 부처님처럼 성스러운 분이 저처럼 천한 놈의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만지시다니요.”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니디야, 너는 천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는다. 네 옷은 더러워졌지만 네 마음은 더할 바 없이 착하구나. 그런 네몸에서 아름답기 짝이 없는 향기가 난다. 니디야, 스스로 천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부처님께서서는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일을 행하셨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전생에 무엇을 했으며 어떤 계급을 타고 태어났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현재 그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시했다. 이처럼 불교교단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오로지 수행정진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찾는 진리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6. 정의로운 삶의 경

1. [세존] “정의로운 삶, 순결한 삶, 이것을 위없는 재보라고 한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만약 거친 말씨를 쓰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짐승과 같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악해지고 자신을 더러운 먼지로 오염시킬 것이다.
3. 논쟁을 즐기는 수행승은 우매한 성품으로 덮여 있어 깨달은 남에게서 친히 설한 설법조차 알아듣지 못한다.
4. 그는 무명에 이끌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 번뇌를 알지 못한다.
5. 참으로 이러한 수행승은 타락한 곳에 태어난다. 모태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6.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 부정한 사람은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다.
7.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자들은, 사실은 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그의 수행의 초원에



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8.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썰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 버려라.
9. 그리하여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썰겨들을 날려 버려라.
10. 청정한 자들이라면 서로 마음챙김을 가지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리하면 서로 화합하여 사려 깊게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룰 것이다.

7.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왓띠 시의 제따와나에 있는 아나타뻘디까 승원에 계셨다.
2. 마침 그때 많은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만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한, 꼬쌀라 국의 큰 부호들인 바라문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3.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 그들 큰 부호들인 바라문들은 세존께 여쭙었다.
 [바라문들] “고따마여, 대체 현재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봅니까?”
 [세존] “바라문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예전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4. [바라문들] “그러면, 고따마여,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옛날 바



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세존] “그러면 바라문들이여, 잘 듣고 새기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바라문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 바라문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5. [세존] “옛날에 살던 선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습니다. 그들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이익을 위해 유행하였습니다.
6. 그들 바라문들은 가축도 갖지 않고, 황금도 곡식도 갖지 않고, 그러나 베다의 독송을 재보와 곡식으로 삼아, 하늘의 보물을 지켰던 것입니다.
7. 갖가지 채색으로 물들인 의복과 잘 만들어진 침상과 주거를 갖춘 풍요로운 지방과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들 바라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8. 바라문들은 처형을 면하고 재산의 압류를 면하였으며, 정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9. 그 옛날의 바라문들은 사십 팔 년 동안이나 동정을 지키며 청정한 삶을 살았고, 명지와 덕행을 구했습니다.
10. 그 후에 바라문들은 다른 계층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지 않았고, 아내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하여 즐거워했습니다.



대광사 8월 법회 및 행사

- ◆ 8월 01일 음력 7월 초하루 입재/백중기도 5재(회주스님)
 - ◆ 8월 03일 초하루기도 회향
 - ◆ 8월 05일 칠석기도 입재 오전10시30분 설법전
 - ◆ 8월 07일 칠석기도 회향 오전10시30분 설법전
 - ◆ 8월 08일 백중기도 6재 오전10시 설법전 (종광스님)
 - ◆ 8월 10일~11일 대광사 여름불교학교(초등학교 · 1인당 4만원)
 - ◆ 8월 15일 백중기도 회향. 음력7월 보름법회
오전9시30분 설법전 (회주스님)
 - ◆ 8월 16일 도솔암 참배
 - ◆ 8월 24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저녁 6시 30분~10시 대웅전
 - ◆ 8월 30일 음력8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고맙습니다

대광 후원회

(6. 20 ~ 7. 17)

| | | | |
|---------------|---------------|-------------|-------------|
| 홍승운 20,000 | 원광한의원 100,000 | 선 일 30,000 | 김지현 100,000 |
| 박덕옥 30,000 | 정태영 50,000 | 변동일 10,000 | 이미정 50,000 |
| 김경남 20,000 | 박미애 10,000 | 유봉악 10,000 | 홍예현 50,000 |
| 정광심 30,000 | 정아윤 50,000 | 허점자 10,000 | 오미라 30,000 |
| 제화자영가 100,000 | 우명희 20,000 | 강 란 10,000 | 찬불단 50,000 |
| 법계화 30,000 | 이동연속 100,000 | 대광사 100,000 | 김병문 20,000 |
| (주)커텍 300,000 | 금강지 10,000 | 유미란 50,000 | 황두관 10,000 |
| 광대혜 30,000 | 최진환 10,000 | 조성부 100,000 | 서경스님 50,000 |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백중 입재 공양자

양조은 100,000 / 강현준 100,000 / 변창인 떡10말 / 황상선 100,000
원지심 50,000

♥ 백중 초재 공양자

구동채·김지원·구비주·구나예·구다예 쌀1포 / 김귀애 쌀1포
안종부 100,000 / 박외순 100,000

♥ 음력6월 초하루 공양자

박건식 100,000 / 선영수 100,000



7·8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1. 2019학년도 여름방학

- 기간 : 7월 25일(목) ~ 8월 8일(목) (10일간)
- 개학일 : 8월 9일(금)

7·8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어린이법회 방학

- 기간 : 7월 27일(토)~ 8월 31일(토)

2. 대광사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

- 일시 : 8월 10일(토) ~ 11일(일) (1박2일)
- 장소 : 대광사
- 대상 : 초등 1학년 ~ 6학년 선착순 60명
- 참가비 : 40,000원

3. 2학기 법회 개강일

- 일시 : 9월 7일(토)



칠월칠석 무병장수 기도

- 입 재 : 8월 5일 / 회향 : 8월 7일
-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 : 3만원
- 문의 및 접수 : ☎ 545-9595

수능합격 백일기도

- 입 재 : 8월 7일(수) / 회향 : 11월 14일(목)
- 동참금 : 100,000원
- 준비물 : 수능자 증명사진 1부
- 문의 및 접수 : ☎ 545-9595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 | |
|-------------------------|-----------|
| 경남은행 : 518-07-0096440 | 예금주 - 대광사 |
| 수협 : 921-61-000421 | 예금주 - 대광사 |
| 농협 : 821145-51-042833 | 예금주 - 대광사 |
|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 예금주 - 대광사 |